삼별초 44년, 강화에서 항파두리까지

윤 용 혁 (공주대학교)

목 차

1. 삼별초, 개경-강화-진도-제주도-오키나와?
2.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삼별초 평가
3. 삼별초 관련 유적의 조사
4. 삼별초 관련 기념물의 건립
5. '세계문화유산' 논의, 소설과 드라마
6. '고려 건국 1100년'과 삼별초

삼별초는 대략 고종 17년(1230) 경 개경에서 야별초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1273년 제주도에서 패몰하여 최후를 맞은 군사 정치집단이다. 40여 년 진행된 고려 항몽전쟁의 핵심 주도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삼별초의 존재 기간은 고려의 몽골과의 항전기와 그대로 겹치고 있다. 거기에 항전의 주도 세력은 이 삼별초의 군사력에 크게 의존하였다.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한 고려 정부를 반대하여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항전하였다. 따라서 관련 유적들이 진도, 제주도 등지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 등을 시야에 넣으면서, 유적과 관련한 학술조사, 기념물 건립, 콘텐츠로서의 활용 등 근년의 동향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삼별초 관련 역사유산에 대한 합리적 활용의 자료로서 그 기능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

1. 삼별초, 개경-강화-진도-제주도-오키나와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별초의 전신은 최우에 의하여 설치된 야별초, 시점은 고종 17년, 1230년으로 추정된다. 목적은 치안 유지이지만, 정권의 안정화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설치 초기에는 공적 무력집단으로서의 공공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8월 몽골의 침입이 개시됨으로써 최씨 정권이 마치 국가적 비상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1231년 몽골의 침입을 경험한 최우는 강화에의 천도를 본격 추진하였다. 이듬해 1232년 2월부터 공론화의 과정을 시작하여 6월 16일 천도를 강압적으로 확정하였다. 국왕 고종이 7월 6일 개경을 출발함으로써 공식적 천도는 이루어진다. 천도를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몽골의 침입 이전에 천도 작업을 마치기 위한 것이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리타이 몽골군이 고려에 몰아닥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몽골에 대한 항전을 최씨정권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정권을 보위하는 것은 곧 항전책을 공고히 하는 것과 같았다. 강화도의 삼별초는 필연적으로 무인정권에 밀착될 수 밖에 없었다. 우

에서 항, 항에서 의로 계승된 최씨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삼별초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정권의 기반이 될 때 그 정치적 기능은 군사적 기능을 압도하게 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인정권이 갖는 동력은 약화하고 새로운 국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에 몽골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거점을 먼 곳으로 옮겨 대항 체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과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강화도에 대신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부각된 것이 진도였고, 제주도는 진도를 뒷받침하는 배후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1270년 6월 삼별초가 봉기와 동시에 진도를 향하여 남하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의한 진행이었다. 용장산성과 성 안의 궁궐도 거의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고려는 이제 개경과 고려 2개의 정부가 성립된 상태였다. 그리고 진도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새로운 고려 왕조의 거점이었다. 진도의 삼별초는 처음 나주를 그 세력권 안에 넣기 위하여 진력하였다. 나주는 고려 왕조 건국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이다. 또 1010년 거란의 침입으로 왕조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현종이 잠시 몸을 피하며 재기를 도모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도 삼별초 정부의 중요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진도의 새 정부는 제주도를 배후 기지로 설정하는 한편 일본과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대몽방어선 구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271년 5월 진도는 여몽군의 공세에 의하여 무너지고, 일본과의 연대 기도도 무산되고 만다. 거기에 고려 왕씨와의 단절에 의하여 제주도 거점 시기는 '고려 정통'을 내세우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1271년에서 1273년에 이르는 제주도에서의 삼별초는 지역 세력과의 연대에 의한 독자 정치 집단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1)]

용장성 건물지 조사를 통하여 다량의 와류가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연화문 수키와 와당이 오키나와 우라소에성의 '계유년고려와장조'명 기와와 공반되는 와당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이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2)] 1271년, 그리고 1273년 삼별초의 변동 과정에서 그 세력의 일부가 오키나와에 옮겼다는 것은 사실을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 근년 강진 월남사의 발굴에서 용장성 와당과 맥락이 연결되는 와당이 확인되고[4)] 용장성에서는 월남사 관련 명문이 출토됨으로써 월남사와 진도 정부와의 밀접한 관련성도 검토할 문제가 되고 있다.

개경에서 조직된 삼별초는 강화도와 진도, 제주도를 거치면서 짧은 기간, 변화무쌍 했던 역사적 변전을 이어갔다. 44년의 기간중 강도시대 39년은 삼별초가 항몽정권의 첨병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기간이다. 이후 진도, 제주도의 4년은 삼별초가 파란만장한 역사의 바다에 버려지는 운명의 시련을 경험하면서 그 파고에 휩쓸려 간 시간이다. 용장성과 항파두성은 동아시아 정세의 반전이라는 극적인 상황 전개의 현장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진도는 하나의 흐름을 갖는 것이지만 역사적 조건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항파두성의 자료를 토대로 진도와의 차별점을 확인하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1) 진도와 제주도에서의 삼별초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윤용혁『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일지사, 2000 및『삼별초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혜안, 2014 참조.
2) 윤용혁「오키나와의 고려기와와 삼별초」『한국사연구』147, 2009; 윤용혁「우라소에성과 고려·류큐의 교류사」『사학연구』105, 2012
3) 임영진「오키나와 구스크의 축조 배경」『호남문화연구』52, 2012
4) 김진희「월남사지 발굴조사의 현황과 성과」『강진 월남사의 변천과 정비 활용 학술회의』한국중세사학회, 2015

2.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삼별초 평가

1997년에 지정된 국가 사적 396호 제주 항파두성의 지정 명칭은 '항파두리 항몽유적'이다. 이 유적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대표적 유적으로 주목되어 유적의 정비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유신시대의 말기인 1978년의 일이다. 그 상징으로 세워진 것이 내성 안의 '항몽순의비'이다. 그리고 이같은 가치 개념을 토대로 항파두리 유적은 20년 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삼별초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었다는 점이다. 역사적 평가가 유동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은 '항파두리 항몽유적'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원래 삼별초는 최씨 정권시대 '야별초'라는 특수부대의 창립에서 기원한다. 처음 야별초가 조직된 것은 고종 17년(1230) 경이었던 것 같고, 바로 이듬해 몽골 침입이 개시됨으로써 이 부대는 대몽항쟁을 주도한 무인정권을 뒷받침하면서 대몽전에도 투입되었다. 군사력이 취약했던 당시로서 삼별초는 정예한 특수군사 집단이었던 동시에 최씨 무인정권을 뒷받침하였던 유력한 정치군인 집단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들어 학계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삼별초가 "외세와 싸웠다는 것만으로 '민족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한 가운데, 삼별초 항전을 지나치게 흑백 관점의 논리로 이해하는 데 대한 경계, 삼별초의 민족주의적 의의를 부정하고 민중적 의의를 강조하는 경우, 역사서술에서 삼별초 항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여 그 의의를 무시해버리는 경향, 혹은 삼별초 항전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몽고군 보다 더 나쁜 삼별초"라거나, 삼별초를 일종의 정치군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5공 때의 보안사에 비유하면서, 이들의 항전을 자신의 정권 유지 욕구에서 비롯된 반역사적 정치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서술도 등장하였다. 이 같은 흐름은 요컨대 삼별초항전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5)]

삼별초의 대몽항전에 대한 부정적 논의에 대해서는 기왕에 필자 나름의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삼별초의 항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고려가 건국 이래 유지해온 자주성의 기치를 계승한 전쟁이었다는 것, 몽골에 복속한 개경정부를 부정하는 독자정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삼별초 집단의 구성은 전통적 지배질서에 위배되는 민중적 성격이 강하였다는 점, 그리고 항전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삼별초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일정한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삼별초의 대몽항전에 대하여 종종의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는 배후에는, 무인정권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관점이 개입되어 있다. 즉 무인정권이 본래 군부 쿠데타에 의하여 성립된 정권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 무인정권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경직성 등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삼별초의 대몽항전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평가와 연결될 경우, 훨씬 복잡한 견해의 제기가 불가피해진다. 삼별초에 대한 가치 평가가 흔들릴 경우 '반몽항전'의 의미 역시 불안정해진다. 여기에 삼별초 가치 평가의 한 과제로서 국가중심 관점과 지역 중심 관점이 서로 엇갈리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제주도의 경우, 국가주의 관점과 지역주의 관점에서의 시각의 차이가 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별초에 대한 가치 평가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만큼 삼별초는 가치 평가의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5) 윤용혁 「삼별초 대몽항전을 보는 여러 시각」『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참조.

3. 삼별초 관련 유적의 조사

삼별초 관련 문헌의 빈약함 때문에 관련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료의 확보, 현지 유적의 보존 및 복원 정비 등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 작업이 고고학적 조사이기 때문이다. 1978년 항파두리 유적을 복원 정비할 때 학술적 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유적에 대한 조사 작업은 비교적 근년에 착수 되었고,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강화도

강화도 삼별초 관련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궁궐과 도성의 구조에 관한 조사라 할 수 있다. 고려궁궐터에 대한 조사는 '고려궁지'에 소재한 외규장각지의 확인을 위한 목적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한림대박물관의 1995년 12월부터 2001년까지 도합 4회에 걸친 조사가 그것이다. 조사 결과 이 지역이 조선시대의 행궁 등 궁전 관련 시설이 있었던 구역임을 확인 하였지만, 사적 '고려궁지'에서 고려 궁궐터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후 고려 궁궐터에 대한 탐색작업이 본격 실현된 것은 2008년부터의 일이었다. 이에 의하여 외규장각 건물터 후면의 경사지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고려 궁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6] 이 때문에 사적 '고려 궁지'의 위치 비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강화도성의 유적 가운데 근년 명확하게 그 존재를 확인한 것은 중성 유적이다. 2008년 선원면 창리-신정리의 도로 개설 공사중 신지동에서 중성의 유구가 확인 되어 2009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7] 이후 인화-강화 도로 건설공사 J구간에서 중성의 축성 유적이 본격 조사되었다.[8] 그런데 이와 관련, 이희인은 중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토축성을 강도의 '외성'으로 해석하고 있다.[9] 이제까지 외성으로 추정되어 온 갑곶강 쪽의 동측 해안 방어성은 고려시대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외성의 형태가 환축(環築)이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10]

2) 진도

용장성의 성내 중심 구역에는 경사면에 9단의 층단을 이룬 축대를 조성하여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삼별초 정부의 '궁전'이라고 후대 기록에 남겨져 있다. 궁궐지에 대한 조사는 성내 건물지중 중앙에 해당하는 F지구에 대해 1989년 조사가 시행되었으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9년 이후의 일이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A지구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10

---

6) 겨레문화유산연구원『강화 조선 궁전지 Ⅱ』2011, p.187
7) 조사지점의 위치는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208-5(임), 209-1(전)이며, 2008년 시굴조사를 거쳐 2009년(3.25-7.3)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인하대학교 박물관,『강화 중성유적』 2011, p.13.
8) 2003년 10-11월 지표조사, 2009.5.12-6.29 시굴조사에 이어 2009.8.31-2010.5.9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중원문화재연구원『江華 玉林里 遺蹟』 2012, pp.13-14 참조
9) 이희인『고려 강도 연구』p.148 및 박성우「강도시대 성곽의 현황과 성격」『역사와 실학』42, 2010, p.247 참조.
10) 이희인『고려 강도 연구』 2012, pp.94-101 및 pp.133-138 참조.

년부터 2013년에 걸쳐 건물지에 대한 전면적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9년도와 2010년도 목포대박물관에 의한 진도 용장성 궁궐지에 대한 전면조사는 삼별초의 진도 이동이 강화천도에 이은 또 하나의 천도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20여 동 이상의 건물이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건축의 양상은 개경의 만월대를 연상시키는 구조로서, 매우 섬세한 계획 하에 시공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진도 천도 이전에 이미 기본 설계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의미이다.

산성에 대한 시, 발굴 조사는 2004년에 비로소 시도되었다.[11] 산 능선을 이용하여 축성한 용장산성의 길이는 12.85km(성내 면적 258만 평)로 계측된 바 있다. 처음 지표조사에서는 산성의 일부는 토축으로 정리하였으나, 목포대 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 용장산성은 전 구간이 협축법에 의하여 구축된 석성으로 확인되었다.[12] 용장산성의 축성 연대에 대해서 고용규는 삼별초 입거 30년 이전인 1243년(고종 30)을 지목하였다. 이는 성곽 조사과정에서 신안군 압해도 출토의 '대장혜인 계묘삼월(大匠惠仁 癸卯三月)' 명문와와 같은 기와의 파편이 나온 것에 근거한다. 명문와의 '계묘'가 전란기인 1243년(고종 30)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243년 축성된 용장산성은 삼별초 입거 이전 지역민의 입보처로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13] 한편 2009년도 성내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이후 고용규는 이 건물지(왕궁)를 둘러싼 석심토축(石心土築)의 궁장(宮牆)이 있었고, 이를 내성, 종래의 산성을 외성(나성)의 지칭함으로써 용장성이 내외 2중의 도성체제로 구축된 것이었다고 정리하였다.[14]

용장성 궁궐지에 대한 2014년도 조사(제6차)에서는 건물지 북쪽 궁장(宮牆)에서 출토한 '태평십년 경오사월(太平十年 庚午四月) … 금사사(金沙寺)' 명문이 새겨진 기와 자료가 소개되었다.[15] 또 2011년 발굴의 청동합에서 '월남사(月南社)'라는 글자가 보존 처리 작업 결과 확인되었다 한다.[16] '태평 10년'은 1030년(현종 21)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용장성 건설 이전의 건물지 역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셈이 되었다.

3) 제주도

항파두성은 내성과 외성의 2중구조로 되어 있다. 외성은 북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둘레는 약 6km, 성내 면적은 26만 평에 달한다. 1978년에 유적의 일부 토성을 복원하고, 내성을 석축으로 쌓는 등 정비작업을 하였으나, 이것은 학술적 작업이 전제되지 않은 공사였다. 학술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으나, 그나마 긴급조사와 지표조사, 토성 복원과 연관한 간이(簡易) 조사 수준의 것이었다.[17] 학술적 조사가 본격화 하는 것은 2010년부터의 일이고, 2차에 걸친 시굴 조사를 거쳐 2012년도에 토성에 대한 발굴 작업을 비로소 시행하게 된다.[18]

---

11) 목포대박물관 『진도 용장산성』 2006
12) 위의 보고서, pp.95-97
13) 고용규「진도 용장산성의 재검토」『전남문화재』13, 2006 및「진도 용장산성의 구조와 축조 시기」『13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진도 삼별초』목포대박물관, 2010, pp.90-94 참조.
14) 고용규「진도 용장산성의 구조와 축조 시기」『13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진도 삼별초』목포대박물관, 2010, pp.103-117 참조.
15) 목포대 박물관 <2014 진도 용장성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5.01
16) 연합뉴스, 2014.11.24
17) 2003년과 2004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년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등에 의하여 실시된 바 있다. 2011년(8.12-22) 제주고고학연구소에 의하여 실시된 고성리 513-2 토성복원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도 이같은 조사례에 속한다.
18) 제주고고학연구소에 의하여 2012.5.9-8.6 실시 되었다.

항파두성이 강화중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거칠게, 그리고 서둘러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축의 축성 방식에서 파악되는 공통점은 바로 13세기 중반 강화도에서의 축성 방식이 제주도에서 재현됨으로써 제주 이주 집단의 강화도와의 동질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성의 경우는 석성으로 구축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19] 이 조사에 의하여 내성 역시 외성과 같은 토축이며, 그 범위는 현재 '복원'되어 있는 석성보다 훨씬 넓은 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20] 2011년도 제주고고학연구소의 시굴조사에 의하여 내성의 규모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내성은 평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1변 200m 미만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었다.[21] 제주의 삼별초 유적인 항파두성은 현재 고고학적 발굴 조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의하여 내성의 확인, 명문 기와, 무기류 등 유물이 출토함으로써 일정한 성과가 거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과 더불어 또 다른 관련 유적으로서 제주도 해안 각처에 산재한 환해장성에 대한 상세한 지표조사, 그리고 제주도내 삼별초 관련 다양한 구전 자료 등에 대한 종합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4) '삼별초' 목간

태안군 안흥(安興)의 연안 해역 마도(馬島) 주변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의해 2011년 마도 3호선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에서는 선체 일부 이외에 309점의 유물이 인양되었다.[22] 발견된 목간 자료 화물표에 의하면 이 선박은 전남 여수 지역에서 강도로 발송된 물품을 적재하고 있었으며, 적재된 화물의 일부는 수취인이 '김영공(金令公)'으로 되어 있다. 김영공은 무신집정자 김준(金俊, 1259-1268 집권)을 가리킨다.

목간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삼번별초도령시랑댁상(右三番別抄都令侍郎宅上)' 등 '우삼번별초'의 묵서가 적힌 4점의 삼별초 관련 자료이다. 이 표찰의 수취인 표시 뒷면에는 물품의 내용이 각각 적혀 있다. 그중 둘은 '마른홍합(乾蛺) 1석', 하나는 '상어(沙魚) 1상자', 그리고 나머지 1점은 '견포(犭脯)'라는 음식을 담은 상자이다.[23] 마도 3호선에 적재된 물품에는 바로 삼별초에 대한 시혜품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별초의 진도 혹은 탐라 거점기 1270년부터 1273년에 이르는 시기, 서해 및 남해 연안은 삼별초 군이 수시로 이용하며 조운로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 시기 삼별초의 새로운 자료가 서해 연안에서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4. 삼별초 관련 기념물의 건립

고려의 대몽항전 혹은 삼별초 항전에 대한 기념물은 근년에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대 혹은 근대 이전에 조성된 기념물은 하나도 없다. 당대 혹은 근대 이전에 관련 기념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삼별초 항전 이후 고려가 몽골의 정치적 지배하에 들어가는 상황 때문이

19) 강창언「항파두성과 관련유적」『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제주도, 1998, p.82
20)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2010.12.4에 의함.
21) 제주고고학연구소 『사적 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2011. pp.43-51.
2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태안 마도3호선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2012
23) 임경희「마도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목간과 문자』8, 2011, pp.215-219

었다. 이러한 점이 임진왜란 같은 역사적 사건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따라서 근년의 삼별초 기념물 건립은 그 나름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별초 관련 기념물이 처음 조성된 것은 1978년 항파두성 내성 안에 건립한 삼별초 기념관과 '항몽순의비'이다. 고려의 대몽항전에 대한 최초의 기념물 조성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역사성을 갖는다. 이후 1993년에 강화도 외포리 항구에 삼별초 출발지라는 의미에서 기념비가 세워지고, 진도에는 1999년 배중손의 사당(정충사)과 배중손 동상이 건립되었다. 근년에 조성한 것으로는 진도 용장성의 조사 정비와 관련하여, 용장산성 홍보관. 항몽 충혼탑(2010), 그리고 2013년에 진도 '운림 삼별초 공원'이 개장한 바 있다.

'용장산성 홍보관' 부근에 세워진 '고려 항몽 충혼탑'은 중앙에 휘감아 오르는 모양의 9.8m 높이의 화강석 구조물을 세우고, 하단에는 삼별초 항전의 모습을 부조와 동상으로 조성하였다. 2010년 12월 29일 제막,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이 소요 되었다고 한다. 진도군 의신면 사상마을에는 2013년 4월 삼별초 홍보관을 중심으로 한 '삼별초 공원'이 조성되었다. 운림산방 부근에 위치하여 '운림 삼별초 공원'이라 이름 지었다. 공원에는 홍보관 이외에 민박이 가능한 전통 한옥의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다. 삼별초와 여몽전쟁 관련 기념물 등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다음 자료이다.

삼별초 및 여몽전쟁 관련 기념물 등 건립 현황

순번	기념물	소재지	내용	건립시기
1	처인성 승첩 기념비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	기념비	1979
2	춘천 봉의산 순의비	강원 춘천시 봉의산	기념비	1983
3	충주 대몽항쟁전승 기념탑	충북 충주시	기념탑	2004
4	상주 항몽대첩 기념탑	경북 상주시	기념탑	2013
5	삼별초군 호국항몽 유허비	인천시 강화군 외포리	기념비	1993
6	진도 배중손 동상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동상	1999
7	삼별초 공원	진도군 의신면	공원	2014
8	삼별초 홍보관	위와 같음	공원내 전시관	2014
9	용장산성 홍보관	진도군 고군면 용장성 입구	용장성 홍보관	2008
10	고려 항몽충혼탑	위와 같음	기념탑	2010
11	항몽순의비	북제주군 애월읍 항파두성	기념비	1978
12	삼별초 기념관	위와 같음	전시관	1978
13	이천함		잠수함	1992

5. '세계문화유산' 논의, 삼별초 소설

1) 세계문화유산 추진 논의

최근 강화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24] 참성단, 강도유적, 해양관방유적의 3건이 논의 되었으며[25], 결과적으로 해양관방유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강화도는 38년 강화도읍기의 서울이며, 삼별초의 거점지이기도 하다. 사업은 2015년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삼별초 유적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논의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일본 국사관대학의 도다(戶田有二) 교수이다. 2012년 제주고고학연구소 주최의 학술강연회에서 삼별초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26] 한 고등학교 역사동아리에서 삼별초 유적의 세계유산 추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록하여 둔다.[27]

삼별초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추진을 위해서는 멎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관련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로서, 이에 의하여 유적이 갖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삼별초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민족주의적 가치 부여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적 관점에서의 보편적 의미의 가치 부여와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추진 전략 수립인데, 이를 위해서는 여타 관련 문화유산의 지정 추이를 관찰하면서 사안을 제기할 적절한 시점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2018년을 삼별초 유적의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지렛대의 시점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소설

삼별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몽골 전란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문학작품은 이노우에 야스시(井上 靖, 1907-)의『풍도(風濤)』이다. 1963년에 작품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관련 사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리한 소설로, 소설이라기보다는 다큐에 퍽 가까운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병혜에 의한 번역(현대문학사, 1986)과 최준호에 의한 번역(지학사, 1986)이 출판된 바 있다.

김정한(1908-)의 소설『삼별초』는 1977년에 발표되었다. 동화출판사에서 출판 되었으며, 1994년 시와사회사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유현종(1939-)의 소설『무인시대와 삼별초』는 1983년 스포츠동아에 연재되었으며 2003년에 대산출판사에서 개정판이 전3권으로 간행되었다. 근년 출판된 작품으로는 구종서『불멸의 민족혼, 삼별초』(청미디어, 2008), 오성찬의『아아 삼별초』(푸른사상사, 2005), 곽의진(1947-2014)의 소설『전사의 길, 장군 배중손』(2013년

24)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최 <강화 역사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회의> 2015.3.27
25) 강화 학술회의에서 필자는「고려 강도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제목의 발표를 담당하였다.
26) 戶田有二「오키나와 우라소에 성과 고려기와 문제」『초청 학술강연회 자료집』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pp.39-42. 도다 교수는 2014년 4월 경 작고하였다. 세상을 뜬 수개월 후에야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필자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27) 청심국제고등학교의 역사동아리('역사두드림')에서 전개하고 있는 삼별초 유적 등재 홍보활동이 그것이다. 청소년의 레벨에서 "역사 속에서 아시아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를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 공생하는 방안을 연구, 제안하자"는 것이 단체 활동의 취지라고 홍보지에서 밝히고 있다.

북치는마을 간행) 등이 있다. 오성찬의 소설은 제주도가 중심이고, 곽의진은 진도 중심의 삼별초이다.[28]

3) 창극, 드라마 등

국악오페라 '삼별초' 2009년 1월 진도와 목포에서 각각 공연 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오키나에서 공연하였다. 진도북춤, 진도 아리랑 등을 포함하여 민요 창극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총감독 박병도, 원작 각색 곽의진, 연출 조운. '진도에 또 하나의 고려 있었네'라는 제목으로 2000년에 진도에서 처음 공연하였으며, 2001년 국립국악원 개원 50주년 기념 초청작으로 공연되기도 하였다.[29]

삼별초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2012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무신>(이환경 극본, 김주혁 주연, 56부 작)은 삼별초에 가까운 시점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삼별초를 주제로 한 드라마는 제작된 바가 없다. 콘텐츠 관련, 2006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의한 '삼별초 문화원형 관련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도 기억할 만한 작업이다.

6. '고려 건국 1100년'과 삼별초

2018년은 고려가 건국한 지 1100년이 되는 해이다. 날짜는 6월 15일(병진, 음력)이고, 양력으로는 7월 25일이다. 고려 왕조는 후삼국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실질적 민족 통합을 이룩한 왕조이다. 남북 분단의 현실적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고려는 부단한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면서도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 냈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남북 대치에 미, 일, 중, 러 등 4대 강국의 틈새에서 자주적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21세기 우리 시대에 역시 귀중한 교훈을 주는 역사가 고려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 역사는 남, 북한 공히 귀중한 시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고, 남북간 경색 국면의 대화를 열어갈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삼별초는 자주성을 상실한 개경의 정부를 부정하고, 고려의 정통 정부를 표방하여 떨쳐 일어선 집단이다. 이점에서 삼별초는 고려 건국과 그 정신적 맥이 이어져 있다.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2018년에 삼별초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서 삼별초를 우리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삼별초 관련의 다양한 정보를 계획적으로 축적하는 일이다. 고고학 조사를 진행해 가는 한편으로 구전 등의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다. 고고학 조사도 항파두성, 용장성 등의 중심거점 이외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총합적으로 정리한 삼별초 아카이브가 기능하다. 기존의 관련 기관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28) 제주의 소설가 오성찬은 삼별초를 작품화한 계기에 대하여 "두 번째 계기는 지난 해 8월, 강화와 진도, 항파두리성이 있는 북제주군이 제4차 삼별초 학술세미나 '13세기 동아시아 역사와 삼별초문화' 현장에 참여 했던 일이다. 이날 나는 늦게 들어간 때문에 세미나의 기조발표를 한 윤용혁 교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는 세미나가 끝나고 만찬자리에서 그가 애써 저술한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는 책 한 권을 내게 선물로 주고 갔다"고 서문에 적고 있다.

29) 삼별초연구회를 만들어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키나와까지 가 삼별초 국악창극을 무대에 올리는 등 '전사처럼' 살던 진도의 작가 곽의진은, 2014년 6월 갑작스럽게 작고하였다. 도다 유지와 거의 같은 시점이다. 이 자리를 빌려 삼별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나의 동반자, 도다 유지와 곽의진 두 분의 명복을 빈다.

둘째는 삼별초의 다양한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점에서 국가주의적 관점의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주의적 가치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탐라문화권'이라는 지역 관점에서의 가치,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국제적 의미 등 다양한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30] '항파두리 항몽유적'이라는 항파두성의 사적 지정 명칭은 '항파두리 삼별초 유적'과 같은 보다 가치중립적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는 삼별초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항파두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이후의 정비와 활용은 중요한 과제이다.[31] 기념관의 활성화, 상징물 조성, 관련 핵심 인물 부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삼별초의 중심 공간은 항파두성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핵심 인물의 부각과 활용이 중요하다. 저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김통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문헌과 구전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김통정은 삼별초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주 지역역사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김통정을 구심점으로 설정한 기존 자료의 재구성, 동상 제작, '김통정 별' 등재 등 김통정을 '영웅'으로 부각하는 것이 '탐라문화권' 개발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는 '삼별초'를 매개로 한 지자체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일이다. 삼별초 콘텐츠의 장점은 지자체 간, 혹은 국제적 연대 강화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기왕에도 북제주군-진도군-강화군의 지역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있다. 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삼별초는 어느 역사 콘텐츠보다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삼별초의 삼별군(三別郡)'이 그것이다. 학술조사의 정보를 정례적으로 서로 교환하고, 지자체 간 관광 문화교류를 보다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되면 이 네트워크는 북한의 개성이나 후쿠오카, 마쓰우라, 오키나와 등의 일본, 혹은 몽골, 베트남, 중국까지도 확산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3개군이 돌아가며 3년에 1회 행사를 준비하면, 연례적인 '삼별군 포럼' 개최가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이를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각 군이 시행기관을 각각 지정하여 준비를 대행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다섯째, '삼별군 포럼'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간 일환으로, 삼별초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한다. 1차 목표는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진입이다. 2018년 '고려 건국 1100년'을 활용하여 2018년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설정한다. 잠정목록 등재에는 '삼별군'의 협력 관계가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강화군이 현재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정리된 이후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30) 김일우 「제주 항몽유적지의 역사성과 오늘날의 가치」『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활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5, pp.10-18 참조.
31) 박경훈 「항몽유적지의 활용방안의 현실적 검토」『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활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5, pp.27-42 참조.